

민주, 오늘부터 64만명 선거인단 투표

‘1차 슈퍼워크’ 향배 관심
대세론 강화·극적 반전 주목
12일까지 1차 국민·일반당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의 주요 승부처인 ‘1차 선거인단’ 투표에 돌입한다. 총 64만표 규모로, 전체 200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8~12일 5일간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진다. 오는 12일 강원지역 경선과 함께 열리는 ‘1차 슈퍼워크’에서 발표된다.

이 때문에 그 결과가 민주당 경선레이스의 초반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순회경선지 충청에서 압승하면서 긴장감은 다소간 떨어진 분위기다.

‘이후명’ (이차피 후보는 이재명)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흥행 요소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충청도의 경선 결과로 인해 밴드오펀(선두주자로 지지가 더 몰리는 현상)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각각 문재인 후보가 첫 개표지에서 기선을 제압한 후 마지막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고 최종 선출된 바 있다.

정청태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이런 전국적인 선거는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며 “권리당원들의 투표 양상은 앞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더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 측은 1차 슈퍼워크와 추석 이후 호남 순회경선, 2차 슈퍼워크까지 승리를 이어가 본선행 직행을 위한 ‘매직넘버’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태세다.

친문 재선인 전재수 의원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1차 슈퍼워크 득

표율은 60%에 육박할 수 있다”며 “대세론이 쪽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른 인사도 “규모가 큰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대세론이 벌써 형성되면서 선거인단 투표율이 떨어질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충청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 지사에게 밀렸던 충격을

덜고 추격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간 캠프가 당원이나 조직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민 일반 여론을 더욱 챙기며 지역민과의 스킨십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민주당이 좀 달라져라”, “정치가 싸다 같아앉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김 총리 “지하철은 ‘지친 서민의 발’”

“연휴 앞두고 파업 자제” 당부
“아프간인들 체계적 지원 필수”



하며 대화에 임해주시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는 7일 서울·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뜰이나 어렵고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

입국한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에 대해 “앞으로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일자리·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주시기 바란다”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은미, 입법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 두 배 확대”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사 영상메시지
“기술혁신 통해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 전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하고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생산 설비의 규모는 17.6GW(기가와트)였으며, 이를 2025년까지 42.7GW 규모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문 대통령

이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런 뉴딜 역시 탄소중립이 목표다. 기술혁신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은 배터리와 수소경제 분야에서 기업들이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탄소 국경세 등

새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잘 대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중간 목표를 담겨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도전적인 목표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정부도 자신감을 갖고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도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계절 관리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민통합위 “헌법개정·정치개혁 서둘러야”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과 논의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일 내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의회·선거·정당 제도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감안,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 체제를 공고화한다”면서 “아울러

지난 총선 때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 정·의사결정 체제 개선 ▲국회의원 윤리 감독을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및 ‘일하는 국회’ 정착 등을 함께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회견 후 정치국회 내 개혁 논의를 마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까지 그렇게 같지는 모르겠다”면서도 “21대 국회 임기 말에 가서는 이런 논의를 해 봐야 제대로 되지 않는다.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특위를 만들어 조속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제안”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주)백양실업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